

이것이 인간인가

무등칼럼



조덕진
문화체육부장 겸 아트플러스 편집장

“따스한 집에서/안락한 삶을 누리는 당신./집으로 돌아오면/따뜻한 음식과 다정한 얼굴을 만나는 당신/생각해보라 이것이 인간인지./...평화를 알지 못하고/뺨 반죽을 위해 싸우고/예, 아시오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죽어가는 이가.”(프리모 레비 ‘이것이 인간인가’ 중에서)
고 프리모 레비의 홀로코스트 증언의 한 대목이다. 이탈리아 화학자이자 작가였던 그는 저 끔찍한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몇 안되는 인물 중 한명이다.

경이로운 무지와 잔혹함

이탈리아에 동화한 유대인 후손 레비는 1943년 파시즘의 광기에 맞서 빨치산 조직에 참가했다. 허나 별반 활동도 못하고 체포되고 만다. 천만 다행으로 당시 노동력이 부족했던 나치가 학살의 속도를 늦추며 죽음을 유예했고 용케 살아남았다.
그곳에서 그는 ‘우연히 객차 이쪽 문으로 내린 사람은 수용소로 들어갔고 다른 쪽으로 내린 사람은 가스로 향’ 하는 유대인의 현실에 맞닥뜨린다. 구타

를 당하면서도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했다. 외려 ‘무척 심오한 경이로운 체험’을 한다. ‘어떻게 분노하지 않고도 사람을 때릴 수 있는지’라는.

그가 새삼 그리워 지는 것은 자유한국당 때문이다. 최근 대표경선 과정에서 보인 이들의 행태가 한순간 영혼을 불러낸다. 김진태 김순례 나경원 등으로 대별되는 한국당 의원들과 그들이 혹은 그들을 추종하는 지만원으로 상징되는 극단주의자들의 무지와 잔혹함이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질문을 되살린다.

잠시 시간과 공간을 옮겨보자.
1980년 5월 아시아 광주라는 도시. 농야 김경철 씨는 계엄군의 질문에 대답을 못해 현장에서 총살당했다. 둘째 아이를 가진 만삭의 최미애씨. 학생들 격정에 학교에 나간 남편을 마중하러 계엄군의 총탄에 생을 마감했다. 그녀는 동네 골목길 전봇대 위에서 가슴에 총알이 관통된 채로 발견됐다. 계엄군은 총상을 입은 만삭의 여인을 병원으로 옮기는 것도 허락치 않았다.

전쟁보다 잔혹한 계엄군의 진압이 끝나고 일상이 왔지만 그곳에서는 누구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80년 5월 도청을 사수하다 체포된 김영철씨. 고문 후유증에 평생을 시달리다 유명을 달리했다. 상무대에서 자행된 모진 고문에 그는 몸과 마음을 모두 빼앗겼다. 정신병원을 전전하다 그렇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곳으로 갔다.

그뿐인가. 지역 한 자치단체의 부유한 제조소집 딸 A. 꽃다운 여고생 A는 그해 계엄군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중적이 묘연해졌다. 들리는 바로는 정신을 빼앗겼고 귀한 딸의 불행에 집안은 흥비박살이 났다. 그의 가족들까지 흔적을 찾기 어렵다고 한다. 다양한 불행의 끔찍한 얼굴은 이루 헤아릴 수도 없다.

그렇게 1980년 후 광주의 일상은 한낱 이미지에 불과하다.

항쟁의 처참함을 목격한 이들의 복귀는 불가했다. 고문 후유증 같은 직접적 원인도 원인이지만 저 밑바닥에 자리한 죄스러움. ‘자신보다 마음이 넓고 섬세하며 포용하고 현명하며 살아있을 가치가 있는 누군가를 대신’ 한 듯 하다는 레비의 말처럼 광주와 광주 밖 사람들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설상가상 노태우시절까지도 광주는 불온한 어떤 존재였다.

학생들이 학자들이, 시인·소설가·화가들이 목숨을 담보로 증언에 나섰다. 광주 안에서 밖에서 또 다른 희생은 그렇게 이어졌다. 수많은 피의 대가로, 목숨값을 치르려가던 1980년은 겨우 ‘민주화운동’이라는 제 이름을 얻었던 것이다.

21세기 2월, 대한민국은 극단적으로 홀로코스트보다 더 끔찍하다. 전후 독일에서 일부 우익이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집단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자칭 지식인이라는 자들, 정치인이라는 지도자라는 자들이 거의 범죄집단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양상이다.

기억은 죽지 않는다

그런 그들에게 ‘정치적으로 약용말라’는 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의 발언은 나치 친위대(SS)와 심하게 겹쳐 보인다.

“이 전쟁이 어떤 식으로 끝나든지 간에, 너희와의 전쟁은 우리가 이긴 거야. 너희 중 아무도 살아남아 증명하지 못할 테니까. 혹시 누군가 살아 나간다 하더라도 세상이 믿어주지 않을 것”

“너희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누구도 알지 못할 것”
2차 대전 기간 유대인 집단학살에 나선 SS가 수용소 유대인들에게 던진 말이다. 끔찍하지 않은가, 뭐가 그 싱크로율이.

내 표정이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한 시답잖은 고찰

컬처에세이



박성웅
KBS광주방송총국PD

한국계 배우이자 코미디언인 켄 쉐의 스탠드 업 코미디 쇼. 그는 한국인의 특징으로 인상을 쓰고 화난 듯 말하며 이를 우스꽝스럽게 흉내 내자 공감한다는 듯 객석에서 폭소가 터진다.

오래된 TV에나메이션인 ‘심슨 가족’의 어느 에피소드. 한국인 엄마가 화난 표정으로 아이에게 숙제를 하라고 소리친다. 뿐만 아니다. 내 말레이시아 지인도 한국인의 얼굴 표정이라며 어설픈 흉내를 내는데 그 뒷맛이 씁쓸하더라. 이 정도면 한국인의 표정에 대한 어떤 전형에도 도달한 게 아닌가 싶다. 그들은 말한다. 무표정한 것이 아니라 표정이 ‘무섭다’고. 왜 우리는 얼굴 표정이 무겁고 미간은 찌푸려져 주름

까지 잡힌 것일까.

영국에서 오래 살았던 친구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마침 파란 가죽 재킷과 청바지, 버스 손잡이처럼 커다랗고 우스꽝스런 플라ستيك 귀고리를 한 백인 여성이 들어왔다. 친구는 말했다. “중산층 영국 여성 특유의 표정이군” 나는 그 의미를 이해했다. 주위의 시선을 아랑곳 않고, 그렇다고 자신의 패션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오로지 커피에 집중하고 있는, 말 그대로 ‘무표정’이다. 친구와 그녀는 영국식 영어로 짧지만 경쾌한 대화를 나눈다.

동남아를 여행하다가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느낀 것도 그렇다. 좁은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외국인에게 자연스러운 미소로 인사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천연덕스러운 표정의 노인, 방긋방긋한 표정의 몸집 좋은 중년아줌마, 혹은 표정이 없지만 부드러운 눈빛의 히잡을 쓴 학생들. 표정으로 상대를 공격하지 않고 행동도 마찬가지로, 열 사람 먼저 출입문에 드나들게 비켜주는 게 몸에 밴 사람들.

이야기가 귀신 씨나락 까먹는 것 같고, 근거가 태부족한 경험주의로 빠지긴 하지만 계속 한다. 이제 한국 예가다. 길을 걷다 보면 자주 겪는데, 자연스럽게 서로 비켜가지 않고 상대방 먼저 비키라며 한가운 데로 무표정하게 걸어오는 경우 말이다. 당신이 먼저 비켜보라. 그는 절대 비키지 않는다. 심지어 팔이 부

딛혀도 그들의 직진은 멈출 줄 모른다. 개인적으로 그들을 비켜가게 할 비법을 알고 있다. 멈춰 서서 핸드폰을 보라. 100% 그들은 비켜갈 것이다. 즉, 상대방 얼굴이 자신을 보지 않으면, 그는 비켜 간다. 언젠가 사람 출입이 잦은 어느 식당에서 출입문을 나서다가 두어 사람이 들어오자 내가 문을 잡고 사람들이 들어오게 한 적 있다. 그러다가 거의 10여명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들은 문을 잡아주고 있는 나에게 가벼운 목례라도 혹은 감사하다는 눈빛을 보내는 사람이 없었다. 마치 당연하다는 듯 진주하러 들어오는 전승국의 군인들처럼 들어왔다.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일종의 강고한 ‘관습’처럼 보였다.

이런 주제를 얘기하다가 저마다의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내전을 겪은 나라에서 자신 먼저 살고 봐야 한다는 뿌리 깊이 박힌 피해의식, 1등 지상주의에서 모든 사람이 잠재적 경쟁자이고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관용이 없는 사회 등등. 그러다보니 자신의 포지션에 대한 주위의 눈치를 보게 되고, 결과적으로 근엄하고 무서운 표정의 ‘작은 권력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차를 운전하다보면 ‘작은 최순실’들이 득시글거리는 것 아니냐고 내가 목소리를 높이자 어느 후배가 말했다. “선배 표정 무서워요...”

겨울 같지도 않은 겨울도 이제 가고 슬슬 봄은 올 것이다.

시련의 눈보라를 헤치며/성운(盛運)의 불꽃으로 밝은 미래를 열게 하소서//후손들이여!/통한의 아픔을 뺏을길이나 상기하면서/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이 육되지 않도록//부디 갈등과 분열을 종식시키고/단일민족의 위대한 협력으로/온누리(溫누리)의 빛이 되게 하여 주소서

2019년 3월1일 3·1운동 100주년 기념을 추모하면서

장재규
전 전남고등학교장



3·1운동 100주년 기념 추모사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일제에 항거했던/기미년 3·1운동 100주년!/조국의 산천도 울고 푸른별도 증언하노니/그토록 아름다운 조국강산이/왜 핏빛으로 물들었는가?//극약무도한 왜적들의 침탈과 강제병합으로/높고 푸른 내조국 평화로운 대지를/오족(汚足)으로 우리 근역(權域)을 오염시켰고,/갑갑하고 어두웠던 36년의 식민지 시절/착취와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분연히 맞섰던/우리의 장한 애국 선열들//18세의 꽃다운 나이에 악랄한 고문으로 순국하신/유관순열사의 애국총절을 어찌 잊을 수 있으랴//하늘도 무심히 얼룩진 역사/빼앗긴 목숨과 재산은 그 얼마이었는가?//침탈된 조국의 국권회복을 위한 민족혼은/분별의 심지가 되어 활

활 타올랐고,/자유독립을 위한 온겨레의 강렬한 열원은/군국통치와 민족말살 정책이 야만적일수록/대동단결로 민족자존의 정당한 권리를/세계만방에 고 하였다.//절제절명·풍전동화·백척간두의 절망 앞에서도/결코 좌절하지 않는,/끈질긴 집념과 투혼으로 맞섰던/백의의 민족혼이여!//당신들의 장엄한 주검앞에 엎드려 통곡하며/다시는 이땅에 비운의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승고한 명예가 영원히 기록되고 빛나도록, //결코 부끄럽없는 자랑스런 후손들이 되기를,/굳은 맹세 번지않고 영원토록 가슴깊이 간직하리라.//천만년을 두고 명복을 비노니/역사의 폐허를 딛고 굳건히 일어나/민족번영과 비상의 도화선이 되게 하여 주소서//절망과

광주·전남 대표 정론지 **무등일보** 1988년 10월10일 창간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3(일간지)
회장 조덕선 사장 발행·편집인 장인균 주필 김영태 편집국장 강동준
주소 (우) 61234 광주시 북구 제봉로 324(중흥동 700-5) SRB미디어빌딩 5층 대표전화 (062) 606-7700
광고접수 (062)606-7772 FAX (062)383-8765 구독신청 (062)606-7776
편집부 (062)606-7750 정자부 (062)606-7722 경제부 (062)606-7713 사회부 (062)606-7730 지역사회부 (062)606-7723
문화체육부 (062)606-7737 사진부 (062)606-7762 뉴미디어부 (062)606-7760 서훈부 (062)606-7730 서울지사 (02)313-1681
구독료 한달 10,000원·1부 5000원 | 독자재보 062-606-7730·FAX 062-606-8765 | E-mail mdilbo@srb.co.kr
홈페이지 http://www.mdilbo.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mdilbo7700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사설

5·18 망언·망동, 왜곡대책위 무엇하고 있나

5·18발언 파문이 온 나라를 휩쓸고 있다.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들이 국회까지 파고 들며 가짜 뉴스에 휘둘린 이들이 세를 불리는 왜곡 천치가 됐다. 광주지역 켈기대회에 이어 오는 23일 광화문 촛불 집회가 예정될 정도로 망언·망동은 도를 넘어섰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런 망언·망동을 더 이상 용서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5·18의 가치와 정신을 능멸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망언·망동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에 효율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할 ‘5·18민주화운동진실규명법’과 ‘역사왜곡 대책위’(왜곡대책위) 활동은 느슨하기만 한 것 같다. 5·18을 왜곡하고 부정하려는 세력들의 망언과 망동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그들이 서슴치않는 망언·망동은 도저히 용납 못할 단계에 이르렀다.

상황이 이러하네 왜곡대책위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근본적 물음이 나온다. 물론 왜곡 대책위도 나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5·18 왜곡 세력의 뛰는 활동에 비하면 뭔가 부족한 느낌이다. 왜곡대책위가 구성된 지 7년째를 맞는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특히 무차별로 퍼지는 5·18 관련 가짜뉴스에 거의 손을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5·18가짜 뉴스는 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를 통

해 급속히 퍼지는 특징을 보인다. 퍼지는 속도를 보면 한 차원 진화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조직적으로 활동해 위험감마저 느낀다. 아예 드러 내놓고 활개를 치고 있음에도 이미 법적으로 끝났다고 애써 무시하다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다.

왜곡대책위가 임시 조직이라는 한계가 있다 해도 사전에 왜곡 움직임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책위는 지금이라도 광주시민이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심점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유튜브 등을 통해 날파되는 가짜 뉴스에 특히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아직도 5·18은 광주만의 5·18에만 머물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그 가치나 명성이 국제적으로 선풍해졌음에도 이들 왜곡·뻔뻔하려는 망언·망동이 그칠 줄 모른다. 법률을 제정해 엄정히 다스려야 하지만 보수 정당의 거부로 처벌법 제정은 아직 요원한 상태다. 처벌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여 지금을 왜곡에 즉시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는 게 중요한 시점이다.

한 중도 되지 않는 세력에게 역사 농락을 허용할 수는 없다. 그것은 후대에게 죄를 짓는 꼴이다. 더는 두고 볼수 없는 왜곡 세력에게 5·18 왜곡대책위의 효과적 대응을 촉구한다.

졸속 피해야 할 전남권 운동부 합속소 폐쇄

전남지역 학교 운동부 합속소가 체계적 성폭력 파문 등의 여파로 전면 폐쇄 운명을 맞고 있다. 현재 운동부 합속소를 운영 중인 학교는 중학교 4곳, 고등학교 6곳 등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들 합속소 운영 실태를 점검해 학교 측에 전면 폐쇄를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이 학교 운동부 합속소를 폐쇄하려는 것은 심석희 선수 폭행 사건 등 일련의 체육계 비리에 영향을 받은 때문이다. 심 선수의 ‘미투’로 불거진 체육계 내 불미스러운 폭력 사건과 관련된 논란이 이는 상황에서 학교 체육에 대한 혁신의 목소리가 높다.

이로 인한 일선학교 상시 합속소 폐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어린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이전에도 학교체육 현장에서 학기 중 상시 합속훈련의 폐해 목소리는 높였던 터다. 어린 학생들을 학기내내 붙잡아 두는 식의 장기 합속훈련의 효과가 과연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면서다.

어린 학생을 희생양 삼아 성적표를 내는 운동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말이 나온 것도 사실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나온 전남권 운동부 합속소 전면 폐쇄는 성적지상주의 학교 체육에서 벗어나려는 교육적으로 받아들여 진다. 그러나 타 시도 등 외지 출신 운동부 학생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일

것이다. 합속소 폐쇄로 그들은 사실상 운동을 그만둬야 할 처지로 내몰릴 수도 있다. 지난 10년간 85억원을 쏟아부은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전면 폐쇄하는 것이 옳으냐는 불만 소리도 나온다.

행정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문제가 있으면 없애는 것이다. 전남지역 학교 운동부 합속소 폐쇄도 마찬가지다. 기껏 예산을 들여 지어 놓은 합속소를 하루 아침에 폐쇄하는 꼴이다. 이런 예산 낭비가 어디 있는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지금은 학교 스포츠도 바뀌어야 할 때다. 합속소도 장이나 인·적성 교육 없이 어린 선수들을 무한정 붙잡아 놓고 성적만 올리려는 방식은 이제 지양돼야 한다.

성적을 명분으로 알게 모르게 선수들을 괴롭혀온 지도 방식과 지도자는 추방하고 그런 합속소라든 폐쇄가 마땅하다. 다만 미래의 꿈을 향해 앞만 보고 달려온 선수들의 피해는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합속소 폐쇄에 앞서 피해 학생들 대책도 함께 나와야 할 이유다. 합속소를 기숙사 형태로 전환한다지만 재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느낌이다. 그렇지 않아도 학생 수 감소로 전남도 관내 방치된 학교 시설이 많은 데 합속소까지 더해져 황홀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도교육청은 합속소 폐쇄에 따른 피해자 구제에 좀 더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몸값’

‘860억원·1천10억원’. 영국 프리미어리그(EPL) 아스널 레전드 이안 라이트가 제시한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의 몸값이다.

라이트는 BBC 라디오 ‘먼데이 나이트 클럽쇼’에 출연, “손흥민은 EPL 최고 선수 중 한 명”이라며 “영어와 포워드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손흥민의 시장 가치는 약 860억원·1천1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손흥민은 올해 연봉 728만 유로(약 93억원)를 받는다. 주급은 14만 유로(약 1억8천만원)로, 팀내에서는 해리 케인(1천40만 유로)에 이어 2위다. 국내외 기업 광고 등을 포함하면 총 수입은 100억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몰론은 경기력으로 최고 주가를 올리고 있고, 군 복무 문제까지 해결돼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한국인 스포츠 스타 중 최고 연봉 선수는 손흥민이 아니다. 주인공은 메이저리그 텍사스에서 뛰고 있는 추신수. 텍사스와 7년 1억3천만 달러의 초대형 계약을 맺은 추신수는 올해 연봉으로 2천100만달러(약 233억원)를 받는다. 류현진이 그 뒤를 잇는다. 류현진의 올해 연봉은 1천790만달러(약 199억원)에 달한다. 국내에서는 프로 야구 롯데에서 뛰고 있는 이대호가 ‘최고 몸값’이다. 메이저리그에서 복귀한 이대호는 롯데와 4년 150억원에 계약했다. 계약금 50억원에 4년 동안 연봉 25억원을 받는다. 프로축구 최고 연봉은 전북 현대 김신수(16억500만원), 프로농구 최고

연봉은 KCC 이정현(9억2천만원), 프로배구 최고 연봉은 대한항공 한신수(6억5천만원)이다.

스포츠 스타들의 몸값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포털사이트 어학사전을 보면 ‘몸값’은 사람의 가치를 돈에 빚대어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돼 있다. 일반적으로 노동의 대가가 바로 ‘몸값’이다. 스포츠 스타는 실력이 ‘몸값’이다. 최근에는 ‘걸어 다니는 광고판’이라고 비유하듯 팬들을 위한 세심하고도 끊임 없는 자기 관리도 중요하다. 스포츠 스타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브랜드와 같다. 연봉 협상에서 볼 수 있듯이 스포츠 스타들도 보통 선수처럼 좋은 성적을 내면 ‘몸값’이 오르지만 반대의 경우는 ‘몸값’이 대폭 깎인다.

요즘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말방이 도를 넘고 있다.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라면 역사 왜곡도 서슴치 않는다. 국회의원의 품위와 품격도 전혀 없다. 비싼 몸값에 비해 ‘성능’이 형편 없고 일부는 ‘불량품’처럼 보인다. 우리나라 만큼 국회의원이 과분한 대우를 받는 나라는 없다. 1억 4천만원 가량인 연봉은 국민소득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고, 여기에 국회내에서 보직이라고 말으면 ‘용문’(특수활동비)까지 받는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 때 국민들은 ‘몸값 못하는’ 국회의원을 심판해야 한다. 그 전에 제 역할을 못하고 품위도 떨어지는 의원들의 세비라도 대폭 깎으면 어떨까? 우리가 내는 세금이니가.

박석호 경제부장 haिता2000@srb.co.kr

“언제 어디서든 광주를 한눈에!”
가장 빠른 광주뉴스
시라방 뉴스룸
무등일보·뉴스가 함께 만듭니다